

독자기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인간의 이기심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의 헌신이 자칫 물거품이 될 처지다. 바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지역사회 감염도 거의 없던 때에 발생돼 더욱 안타깝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던 시기에도 주요 도심지의 클럽, 유흥주점 등에는 젊은이들로 여전히 북적이라는 뉴스가 많이 회자됐었다. 특히 2~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TV인터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젊으니 코로나에 잘 안 걸려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도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려요' 이 얼마나 무책임한

고 이기적인 애기인가? 흔히 말레니얼세대, Z세대로 지칭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애가 강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경향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견 아니다. 코로나19의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태원클럽 확진자를 통한 2차, 3차 감염사례가 속속 발생되고 있어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새삼 곱씹어진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계, 두레, 향약 등의 협동조직체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상부상조와 협동 단결의 모습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마치 개인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공공의 안녕을 저버린 꼴이다. 요즘 같은 초여름 날씨에 마스크를 쓰면 숨 차고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맑고 화창한 날에 콧바람을 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던 말인가. 그러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게 세상이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된 지 벌써 네 달째 접어들어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는 '우리',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이 바로 '공동체의식'을 적극 발휘할 때다.

독자기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국중균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기업이 신바람 나게 해주면 다 해결되지 만 강성노조는 위기극면에도 쟁의깃발로 나라와 기업 근로자가 공생 공존해야 하는데 남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모두 내 탓이라 반성하고 성찰한 사람이 드물다. 글로벌 세상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싸우면 되겠는가! 말 많고 탈 많은 위정자들은 당리당락에 국민을 외면하면서 정치는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 하고 모두가 국민들을 위해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나 많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는가를 반성하고 성찰해 보자. 뭇난 구석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잘난 구석은 내세우지 않아도 이미 남들이 알아주며 겸손하면 더 많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대가 된다.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쉽게 붙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비겁하다 라는 단어를 써주면 아마 이해가 되는지 그들은 이해는 하더라도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타

인이 했다며 역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이다. 잘못을 인정했을 때의 후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이다. 마스크를 보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필자 역시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내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자신은 더 멋있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사회생활은 많은 사람과 어울림이다. 혹시 내가 틀린 의견 개진 시 남 탓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도 그 내면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인품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독자기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기 주의하자



신광식 전남진도경찰서 경무과 경장

가 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동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바이라스 방역과 극복을 위한 모범으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이와중에도 사기 범죄는 그칠 수 없나보다. 사기범죄 집단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이용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탈취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요일제로 조화가 가능하며, 5월 11일부터 신

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환급받지 못한다. 사기 범죄는 위의 일정에 맞추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사칭하여 지급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탈취하는 보이스피싱과 두 번째,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링크(URL)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긴급재난지원금을 탈취하는 스미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을 칭하며 연락이 왔을 때 일단 전화를 끊고 관할 주민센터나 우체국, 파출소 등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 해킹당해 전화를 걸어오면 보이스피싱 집단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자 전송받은 링크도 함부로 클릭해서 안된다. 가짜 링크(URL)로 연결되어 개인정보와 재난지원금을 탈취당할 수 있고 해킹 앱이 설치되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국번없이 118)나 긴급신고 112에 적극 신고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10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국민이 방역 주체

독자투고

정지선 지키는 습관이 중요

선(線)이란 사전적 의미로 경계가 되는 금이나 줄이란 뜻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선, 정지선, 차선, 진로변경제한선, 속도제한선이 있다. 그 중 정지선은 보행자와 운전자 간 교통사고예상을 위해 만들어진 생명선이다.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이다.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주의를 잘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안전운전의 첫걸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는 음주·무면허·과속운전 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기도 한다. 간혹 횡단보도 한 가운데 급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지선 지키기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 화하게 된다면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자연스럽게 서행운행 하게 된다. 왜냐하면 황색신호가 들어올 것을 대비

해서 횡단보도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해야만 정지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방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3미터 정도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곳의 충돌사고가 바로 신호위반사고이다.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상 신호지시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많이 위반하는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침범 정차는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이며, 교차로 꼬리물기의 경우 범칙금 4만원으로 각각 처벌된다. 처벌이 두려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아닌, 소중한 내 가족이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지선 지키기를 습관화한다면 당신이 바로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다. 김대원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 구레119안전센터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강조하였다. 2019년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총 294건으로 1일평균 73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 17명에 달했다. 이 중 추석명절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해야 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19건(4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을 알려주어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황화연 구레119안전센터장은 "이번 추석에는 멀리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준비하여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는 효도를 실천하고 우리 모두 마음 든든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순천소방서 구레119안전센터 김태문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동영로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윤규진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사항,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내라 광주시민, 힘내라 광주경제

마스크

외출자제

손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를 이깁니다